

#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 장수군, 경도인지장애자·인지저하자 한약 치료 등 지원... 지난해 만족도·효과 높아

장수군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 예방하고, 급증하고 있는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한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3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운영한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결과, '인지선별검사(CIST)',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의 평균이 시행 전보다 4.09점, 2.08점 향상하고 '노인우울척도(SGDS)'는 시행 전과 대비해 평균 0.53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르신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높은 사업 효과와 선호도를 고려해, 장수군은 장수군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연장했으며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을 선정하여 4월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 4곳에서 초기 평가 시행 후 집중 및 한약치료를 6개월간 실시하고 급여 및 비급여 치료 비용은 전액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4개 지정 한의원은 장수읍 △소망 한의원 △바다 한의원, 장계면 △송 한의원 △해나무 한의원이며, 군은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의 치매예방과 치매 유병률 억제에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과 인지저하를 경험하는 어르신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치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7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미래세대에 희망과 용기·정의로운 진안 건설 불쏘시개 되겠다”

### 민주 전용태 예비후보, 진안군 도의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용태(53) 예비후보가 진안군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진안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며 “진안 마령 출신으로, 진안군민을 진정히 진안의 주인으로 섬기며, 지역 일꾼인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모든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지방자치단체 소멸위협지역인 진안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태 예비후보가 진안군 도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전 예비후보는 “전라북도회에 진출해 지방자치단체 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함께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인구감소지역지역특례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등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안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자긍심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정의로운 진안 건설을 위해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진안의 역사와 문화, 자연, 사람의 가치를 높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며 주민과 소통하는 능력 있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용태 예비후보는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전라북도지사 표창 등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한방기업 이사, 더불어민주당 안·진·무·장수지역위원회진안군 청소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

진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며 점검 대상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8개소다. 점검에는 위생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 및 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 시 식품위생법

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김수운 주무관은 “이번 점검은 단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안 관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판매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진안군 위생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민들의 식품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여한 무주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 무주 농·특산물 품질 '우수'

### 군,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서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특산물이 전국단위 직거래 박람회를 통해 위상을 드높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여한 무주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주)한국전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주)청오, 천마사업단, 유통사업단, 무주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가 출품한 무주산 우수 농·특산물인 머루와인을 비롯해 천마가공식품, 사과즙 등이 청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고품질이란 주최측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딧불사과의 경우 20도 이상 되는 특수한 일교차의 영향으로 당밀(꿀)이 형성되면서 당도와 향기 등을 비교할 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과 저장성이 좋아 7년째 서울 가라동 농산

물도매시장에서 최고 경매가격 자리를 고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은 100억 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 무주군의 전략 품목에 대한 수매와 저장·판매 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농가 유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 및 특산물 관련 단체들의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판매 지원, 영세한 생산 단체의 판매지원과 위탁 판매 조지를 육성해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전국 단위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서 무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특성을 살린 전략품목을 개발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거래박람회에는 227단체 258개 부스가 운영돼 각 시·군의 농·특산물이 소개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1학기 장학생 선발 접수

무주군이 2022년 1학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들에게 접수 받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고교진학장학생, 특기장학생(초·중·고), 반디장학생(대학생)이다. 반디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재수생 포함)과 1·2·3학년 재학생(복학생 포함)이다.

반디장학생에게는 1인당 1학기 1백만 원을 지급하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신입생 전원에게는 20만 원의 고교진학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예술, 체육, 기능 분야 특기 장학생에게는 초등학생 5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는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3일(오 후 6시)까지 방문접수(무주군 평생교육원 2층 평생교육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하거나, 우편접수(무주읍 한풍투로 326-36 평생교육원 2층)하면 된다. 공통 기준으로는 기준일(2022.4.1.) 현재 보호자 중 1인과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무주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무주군의회가 지난 8일 의정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의정경험이 풍부한 유승열 의원이 위촉되었으며,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직 군의원·공무원 출신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8일부터 5월 2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급고의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박찬주 의장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승열 의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 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인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지방세정 종합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수실적과 세정운영에 관한 14가지 항목을 평가해 결정한다.

군은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과 증감율, 세수추계 정확도, 세무조사 실적, 마을세무사 운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북도 내 군부(8개군)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